

뉴스 초점 사상최대 위기 맞은 금호타이어

공장 스톱·中 리콜사태 '내우외환'

파업 갈등 455억 손실...지역경제 큰 근심

금호타이어가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지난해 흑자 전환에 성공했던 금호타이어가 올해 '위크아웃 중 파업', '중국시장 리콜'이라는 내우외환에 빠졌다. 그동안 공 들였던 '시장의 신뢰와 경쟁력 확보'가 한순간에 무너져 처졌다.

27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지난 25일부터 노조의 파업과 사측의 직장폐쇄가 이어지면서 공장 가동도 사흘째 멈췄다.

이에 따른 매출 손실은 26일까지 455억원에 달하고 있다.

금호타이어의 파업 사태는 장기화될 전망이다. 노사 양측의 입장이 팽팽한데다 양보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노조는 지나친 임금 삭감과 비정규직 양산이라며 2010년 임금 및 단체협약의 재교섭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사측은 정리해고 대신 임금을 삭감했고 정년퇴직분 만큼만 도급화(아웃소싱)한 것으로 이를 무효화하려는 노조의 재교섭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했다.

여기에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도 연대 총파업을 검토하고 있어 사태는 확산될 조짐이다.

더욱이 채권단은 자금 지원을 철회할 뜻을 밝히며 위기는 한층 고조되고

있다. 금호그룹의 한 관계자는 "노조의 파업과 직장폐쇄 등으로 인해 가동이 중단되면서 채권단이 사실상 지원을 철회할 뜻을 전해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채권단 고위 관계자도 광주일보와 인터뷰에서 "이미 결정(작년 임단협)된 것 가지고 재협상은 없다"며 "1조 원 가까이 투자해 살 길을 열어놨는데 파업이러니 이해할 수 없다. 지원

에도 한계가 있다"고 워크아웃 중단을 시사했다.

협력업체와 지역 경제계도 파업 장기화를 크게 우려하고 있다.

금호타이어협력업체협의회는 28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통해 '협력업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한 협력업체 대표는 "국제 원자재값 급등으로 경영도 어려운데 파업까지 겹쳐 죽을 맛"이라며 "노조는 워크아웃 중이라는 회사의 상황을 인식하고, 사측은 직원들의 희생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 하루빨리 정상화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내부 문제만으로도 골치가 아픈 금호타이어는 광고업계도 외부에서도 거센 시련을 겪고 있다. 최근 중국 텐진공장에서 잔량 고무(제조공정에서 나온 자투리 고무)를 규정 이상으로 사용했다가 문제가 돼 대량 리콜 사태에 직면하게 됐다. 세계 최대 자동차시장이자 중국 타이어 시장 1위의 자리를 고스란히 내줄 상황에 처한 것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27일 호주F1그랑프리 대회가 열린 멜버른시내 엘버트파크 서킷에서 레드불팀의 세바스티앙 베텔 선수가 선두를 질주하고 있다. /연합뉴스

굉음·질주...35만 관중 심장이 뛰었다

2011 F1 개막전

호주그랑프리 가 보니

멜버른=김지을 기자

27일 오후 5시(현지시간) 호주 남동부 빅토리아주 멜버른시 엘버트 파크(Albert Park) 서킷(circuit·경주용 트랙). 스타트 그리드(Grid·스타트 위치)에 선 22대의 '머신'들이 엔진 시동음을 울리면서 꿈틀했다. 경주장을 찾은 35만여명의 자동차 마니아들

의 심장을 뛰게하는 소리다.

스탠드를 가득 메운 관중들의 눈은 스타트 라인에 선 머신에 집중됐고 출발을 앞둔 긴장감으로 심장 박동은 한층 빨라졌다. <관련기사 19면>

결선 레이스 출발을 알리는 초록색 깃발이 올라가자, 22대의 '괴물'은 하이톤의 굉음을 내지르며 서킷으로 뛰쳐나갔다. 780마력짜리 엔진 22대가 동시에 출력을 최고로 높이자, 귀가 찢어질 듯한 굉음으로 공기가 요동쳤고 그랜드스탠드를 가득 채운 관중의 함성도 엔진 소리에 묻혀 버렸다. 머신들이 시속 300km의 속도로 시야에

서 사라져가자 타이어 타는 범새가 진동했다.

호주 멜버른이 자동차 엔진음을 들썩였다. 세계 최대 규모의 모터스포츠 이벤트인 F1(포뮬러원) '2011 포뮬러원 월드 챔피언십'(Formula 1 World Championship) 시리즈가 27일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개막전을 시작으로 총 19라운드의 레이스에 돌입하면서다.

멜버른 공항과 중심가 플린더스 스트리트(Flinders Street) 건너편의 페더레이션(Federation) 광장에 마련된 F1 홍보부스를 제외하면 F1 대회를

알리는 플래카드조차 찾아보기 힘들었지만 팬들의 열기는 뜨거웠다.

▶2면으로 계속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남부대학교
(062) 970-0114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
전남과학대학
(061) 360-5050

알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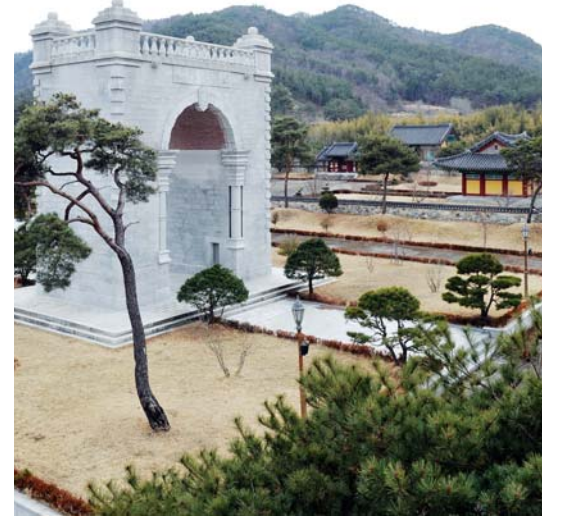
서재필 박사 서거 60주년 추모사업



올해는 송재(松齋) 서재필(徐載弼)박사께서 서거하신 지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광주일보사는 지난 1991년 우리고장 보성태생인 서박사의 독립혼을 현창하기 위해 보성 생가복원 및 기념공원 조성사업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인 데 이어, 미국 필라델피아 교외 남골담에 쓸쓸히 방치된 서박사의 유해를 국내로 봉환하는 사업을 벌여 4년만인 1994년 마침내 서박사의 출생지 보성군에 서재필기념관을 완공하고 박사의 유해를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박사의 서거 60년을 맞아 광주일보사는 서재필기념사업회와 공동으로 다시한번 우리고장이 낳은 위대한 선각자의 정신을 되새기는 행사들을 갖습니다.



서재필 박사 서거 60주년 추모 현수 캠페인

보성군 문덕면 용암리에 자리 잡은 서재필 기념공원(사진)은 광주일보사가 서박사 기념사업을 처음으로 주창한 지 8년만인 2001년 완공되어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념공원은 조경수가 부족하다는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광주일보사는 서박사 서거 60주년이라는 의미에 맞춰 전국의 뜻 있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60그룹에 한정해 현수를 받습니다. 새로 심어질 나무들은 기념공원을 더욱 기품있게 꾸미는 물론 탐방객들에게 쉼 공간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 ▲현수의 종류=수령 10년이상 국내수종 조경수
- ▲신청마감=4월 8일 오후6시(기념사업회가 현수자·수종 적합관정을 내린 선착순 60명)
- ▲신청방법=현수 희망자가 보유하고 있는 조경수 직접기증 원칙, 부득이 한 경우 현수비용 대체 가능.
- ▲신청문의=애국지사 송재 서재필기념사업회 (062-523-2323)에 직접신청
- ※기증된 나무마다 현수자 명패가 설치됩니다.

추모 학술세미나

박사는 일찍이 갑신정변에 참여해 암울한 조국의 변혁을 도모했던 청년혁명가이자 망명지 미국에서의 학을 전공, 의사로 활동했으며 최초의 한글신문인 독립신문을 창간한 언론인이요, 상해임정 요인으로 조선의 독립을 세계에 주창한 독립운동가이기도 합니다. 독립운동가로서의 서재필, 언론인으로서의 서재필을 재조명하는 학술세미나에 많은 참석 바랍니다.

- 토론=오수열 조선대 교수·이경희 호남대 교수
- ◇제2주제 서재필과 독립신문
- 발표=김홍우 경희대 객원교수
- 토론=정재현 광주일보 논설실장
- 유종원 전남대학교 교수
- ◇사회=임재완 전남대 교수

- ◇제1주제 서재필과 개화·독립·민주
- 발표=백학순 남북한관계연구실실장

- ▲일시=4월 4일(월) 오전 10시 30분
- ▲장소=전남대학교 박물관 4층 시청각실

추모식

광주일보사는 1994년 4월 8일 국내에 돌아온 서박사의 유해를 보성 생가에 임시 안치한 이후 해마다 4월 8일 서재필 기념사업회와 공동으로 '송재 서재필 선생 추모식'을 거행해왔습니다. 서박사 서거 60주년인 올해, 그의 애국 애족혼을 기리는 추모식에 뜻있는 여러분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일시= 4월 8일(금) 오전 11시
- ▲장소=보성군 문덕면 용암리 서재필 기념관

- 공동주최·광주일보사·서재필기념사업회
- 후원·국가보훈처·전라남도·보성군

雪花秀
Sulwhasoo
FIRST CARE SERUM
윤조에센스

피부 깊은 곳부터 생기를 채워 차원이 다른 윤(潤)을 완성하다

세상이 윤조에센스를 극찬하는 이유는 메마른 피부에 깊이 스며들어 촉촉한 윤기를 찾아주기 때문입니다. 수십 미터 깊이의 땅 속 수분까지 끌어올릴 만큼 기운이 강한 황기와 귀한 성분을 담은 윤조에센스, 피부의 깊은 갈증은 채워주고 속부터 우러나는 윤기를 더해주어 피부의 근원적인 아름다움을 완성해줍니다. 에센스에 대한 기대를 비단 단 하나의 에센스, 설화수 윤조에센스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생기의 진실
설화수 윤조에센스

Sulwhasoo

AMOREPACIFIC CORPORATION
New Beauty, Collective Innovation
22nd World Congress of Dermatology Seoul 2011
PLATINUM SPONSOR
(주)아모레퍼시픽은 제22차 세계미부과 학술회의 공식 후원사로 활동합니다